이젠 필요해진 수익사업, '부처님 법'에 기반을

주목! 이 논문

현대 한국승가의 생산불교 正向

현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탈종교화는 종교인구 감소 현상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재정 문제는 현실적 문제가 됐다. 단순히 보시와 헌금만으로 종교단체의 재정 운영이 이뤄지기 어렵게 됐음을 알 수 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부교수는 생산불교에서 그 돌파구를 찾는다. 그는 한국불교학회 학술지 〈한국불교학〉111집에 게재한 '현대 한국승가의 생산불교 정향(正向)'을 통해 한국불교계에서 '생산불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조 교수의 논문을 발췌 · 정리했다.

정리=신중일 기자



함양 백용성 선사 화과원 유허지. 이곳은 백용성 선사가 선농불교를 표방하며 만든 농장이었다.

탈종교시대의 도래와 불자 수의 감소로 인한 사찰 재정의 어려움은 오늘날 한국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여러 종교단체들이 종교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열악해지고 있는 재정의 문제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불교단체 즉 종단과 사찰의 실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은 불교교단으로 하여금 자연스레 신도의 보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입구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런 논의에 있어서 많이 등장하는 방안이 '생산불교'다.

생산불교 변천–무진물, 선농불교

승가는 붓다를 중심으로 한 '무경제(無經濟)'의 생활 집단이었다. 붓다 재세시에는 붓다를 직접 신봉했지만 불멸 후 그의 유골을 모신 불탑으로 신앙대상이 옮겨지면서부터 승가의 무경제 생활은 본질적으로 변하게 된다. 진보적인 대중부는 탑물일지라도 일부러 버려두지 않고, 세간의 사업에 투자하여 이윤을 얻든가, 때로는 저당을 잡고 대부해줘 이자를 받아 원본의 무한한 증색을 꾀하는 경제적 합리주의를 선택했다.

불탑에 기진된 물건 또는 재화를 외부에 투자 혹은 대부하여 얻은 이익물이나 이자를 무진물(無盡物)이라 하였다. 무진물은 대중부에서 인정받아 수용되었고, 대승불교에 들어와서는 더욱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이 같은 무진물은 우리나라의 고려불교에서도 나타난다. 본래 무진물은 그 이익물과 이윤을 불탑의 공양비나 사찰의 유지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고려불교에서는 무진물을 가지고 승려의 본분을 벗어난 직업적 활동에 이르렀다. 이런 병리적 현상은 조선시대에 들어 불교에 대한 배척과 공격의 빌미가 되었고, 조선에서 불교는 사회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승가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조선불교는 스스로 자립하여 생존하고자 생산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

조선승가의 자급자족은 '선농불교(禪農佛教)'로 발현됐다. 일체의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던 선가(禪家)에서 조차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백장청규(百丈淸規)〉가 나올 정도로 승가의 생산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된다.

이러한 승가의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는 근대 한국불교에서도 발견된다. 용성(1864-1940)은 승려들이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지 말고 직접 괭이와 호미를 가지고 힘써 노동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충당할 것을 주장했다. 나아가 용성은 화과원(華果院)이라는 농장을 설립해 승려들이 직접 경작하게 함으로써 자급자족하는 선농불교를 실천했다.

현대 한국불교에 있어서도 토지가 교단의 경제적 토대를 이루고 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보사회로 전환됨에 따라서 오늘날의 생산불교는 양태를 달리하고 있다.

현재 한국불교의 종단과 사찰들도 과거처럼 농지와 산림 등의 토지를 경작하여 농림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활용한 임대업을 하고는 있다. 이와 같은 생산불교의 방식 변화는 그 동안 사찰경제를 지탱해 온 토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적 자산을 상품화하는 경제활동으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생산불교의 여법한 실천

종단과 사찰이 생산불교를 하더라도 여법하지 않은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답지 않은 사업은 수익이 생겨도 해서는 안 되고, 그 사업이 법다울 때 비로소 해야 된다는 뜻이다. 물론 이때의 법은 불법(佛法), 즉 붓다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법다운 것인가? 법다움의 기준은 수익사업의 목적과 방법에 둘 수 있을 것이다.

無경제서 경제적 합리주의 변화
백장청규 기반한 선농불교 유지
탈종교시대, '생산불교' 필요해져
수익 최소화, 공유하는 인식 중요
교단 운영에 재가신도 역할 필요

우선 목적부터 논하면, 불교교단의 사업은 비록 그것이 수익사업일지라도 수익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익은 종속되는 결과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 외에는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은 법답지 않은 사업이고, 불교의 원래 목적인 중생고의 해소를 실현하는 방편으로서의 사업이라면 법다운 사업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종단과 사찰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상담센터나 명상센터, 그리고 호스피스병원 등이 여법한 사업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 사업의 비중이 크지 못한 현실은 현행 수익사업의 여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방법을 논하면, 최소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일반사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이윤을 추구하지만 종단과 사찰은 영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에 최소 이윤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의 아속(Asoke) 공동체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아속 공동체는 "우리는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선물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이라며 원가를 공개하고 이윤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보기 드문 공동체다.

아속공동체는 약과 의·식·주 등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만 생산한다. 이와 관련해 비료공장, 허브의약품공장, 병원, 채식당 등을 운영한다. 그들은 생산과 판매를 하되 인간생활에 있어서 기호품이 아닌 필수품만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불교교단이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수익이 아닌 중생고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이의 실천방법으로 최소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승려의 무욕과 청빈이 필요하다. 무욕과 청빈은 탐심을 여의어야만 얻을 수 있다. 출가 승려의 삶은 본래 탐심을 여의는 무욕과 청빈의 삶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초발심을 갖는 행자 시기부터 구족계를 갖춘 정식 승려 시기에 이르기 까지 매순간 세속 범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갖도록 승가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승가에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세속 범부처럼 수익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최대 이윤을 얻고자 생산·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출가 승려답게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최소 이윤을 얻는 생산불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정의 투명화와 수익의 공유화

어느 단체에서든 생산과 수익이 있는데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부정이 생길 여지가 크다. 불교교단의 재정 투명화는 종단과 사찰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불교에서 재정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종단과 사찰은 드물며, 공개를 한다 해도 신뢰성을 갖춘 수준의 자료를 보기가 힘들다. 공개되지 않는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종단과 사찰의 불투명한 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 파급 효과는 사적(私的) 소유의 팽배와 불평등 분배의 확산이다.

붓다는 승가의 소유에 대하여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옷과 음식 등은 나눌 수 있는 가분물(可分物)로 모두 현전승가의 소유가 되도록 하였으며, 토지나 건물 등은 나눌 수 없는 불가분물(不可分物)로 모두 사방승가의 소유가 되도록 하였으며, 이외 시주자가 개인에게 시주한 것과 승가로부터 분배받은 것만 개인의 소유로 인정하였다.

생산불교의 수익 중 일부가 승려의 보시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수익은 개인에게 분배되는 사유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불교로 인한 수익은 가분물이든 불가분물이든 승가공동체의 공유물이 되어야 한다.

재가신도 생산불교 주체 의식 강화

현재 신도의 교단 운영 참여는 상당 부분 수동적 또는 피동적 양태를 보이고 있다. 불교교단의 운영에 있어서 신도의 이러한 수동적·피동적 참여는 기복불교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에게 복을 구하는 기복(祈福)은 어느 종교에서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복은 신도들이 자신들의 복만을 구하는 행위이기에 사찰의 운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든다.

기복이 신도를 수동·피동적이게 만드는 요인이라면, 기복을 작복(作福)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복을 작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불전(佛前)에 무조건적으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선업(善業)이 선연(善緣)을 지어 복으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신도가 생산불교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신도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신도의 교단 운영 참여에 대한 승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도의 교단 운영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승가에 존재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도의 운영 참여는 시대적 요청이기에 출가 승려는 재가신도를 교단 운영에서 객체로서 한정짓지 말고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승려의 인식 개선은 신도가 생산불교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부교수

인도성지순례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신 날 성도재일을 보드가야 대탑에서
성도재일 기도 법회와 인도 7대 성지순례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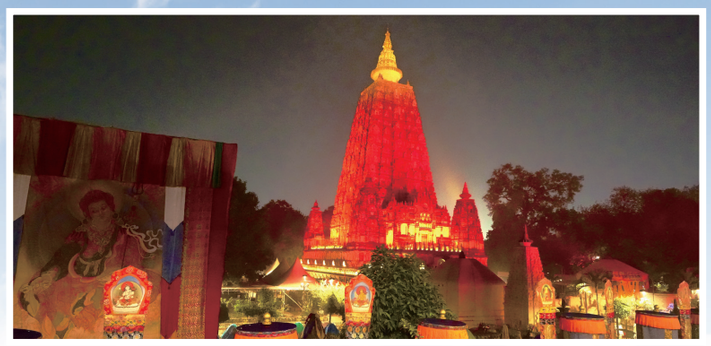
2025년 1월 04일 출발 ~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인도성지 중에서 케사리야 대불탑 뿐만 아니라 - 부처님 출가의 길로 추정되는 곳들에 세워진 난단가르 대불탑(인도 최대의 불탑)과 아쇼카대왕의 석주들인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 석주등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하며 새로운 성지들을 찾아가는 일정으로 순례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 일 정 : 인천 – 델리 – 바라나시 – 보드가야 – 라즈기르 – 영축산 – 나란다대학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석주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기원정사 – 아그라 – 델리 – 인천
▶ 동참금 : 299만원
▶ 기타 인도성지순례 출발일 : 2024년 12월 05일 출발 ~ 12월 15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2025년 2월 15일 출발 ~ 2월 25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인도양의 진주 아름다운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025년 1월 13일 ~ 1월 20일 (8일간)
▶ 일 정 : 인천 – 콜롬보 – 담불라 – 아누라다푸라 – 시기리야 – 폴론나루와 – 누와라엘리야(홍차산지) – 갈레(유럽풍 성채도시) – 아훈갈라(해변 휴양지) – 콜롬보 – 인천
▶ 동참금 : 279만원

중남미 6개국 여행 20일 2025년 3월 5일 ~ 3월 24일
▶ 일 정 : 인천 – 아틀란타 – 리마(페루) – 쿠스코 – 마추픽추 – 쿠스코 – 라파즈(볼리비아) – 우유니 – 라파즈 – 리마 – 리오(브라질) – 이과수(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 파타고니아 엘칼라파테 – 보고타(경유) – 멕시코 시티 – 칸쿤(멕시코) – LA(경유) – 인천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